

# 세월(歲月)의 해석학\*

## —나이듦의 운명에 대하여—

장유라\*\*, 최성환\*\*\*

**주제분류** 문화철학, 생철학

**주요어** 세월, 시간, 나이듦, 노년, 해석학

**요약문**

철학의 중요한 문제이자 삶의 문제로서 시간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았다. 삼라만상의 생성과 변화 그리고 역사의 진행이 시간의 흐름 속에 이루어지고, 삶의 과정이 생로병사라는 과정에 내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시간은 만물의 중심에 놓여있다. 그러나 시간에 대한 존재론적, 역사철학적 논의는 최근 뜸한 반면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나이듦’(Älterwerden)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학적, 심리학적, 문화철학적, 윤리학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이지만 우리의 삶이나 사회생활에서 상수(常數)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철학이 이 새로운 현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 글은 이러한 새로운 현실에 익숙해지려는 철학의 자기성찰의 의미를 담고 있다.

---

\* “이 논문은 2013년도 중앙대학교 신입생 성적우수장학금의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이 글은 2015년 중앙철학연구소 하계발표회에 발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중앙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주저자

\*\*\* 중앙대학교, 교신저자

## 1. 들어가는 말: ‘알 수 없는 인생’과 대화하기

시간은 철학의 중요한 문제이자 삶의 문제이다. 삼라만상의 생성과 변화 그리고 역사의 진행이 시간의 흐름 속에 이루어지고, 삶의 과정이 생로병사라는 과정에 내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시간은 만물의 중심에 놓여 있다. 그러나 굳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시간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삶과 연관된 시간, 즉 세월은 참으로 인간에게 난해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거북한 주제이기도 하다.<sup>1)</sup>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세월을 비켜갈 수 없다는 점에서 인간 삶의 본질적 차원과 연관된 문제이다.<sup>2)</sup>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즉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고유한 해석을 감행하는 대신 자기해명(Selbstaufklärung)의 부담을 덜기 위해 관습적 해석에 머문다면 우리는 하이데거의 표현처럼 “몰락”(Ruinanz)과 “자기결핍”(Sichselbstfehlen)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이런 해석에서 벗어나는 것이 실존을 찾아가는 길이며, 이런 맥락에서 자기해명으로서의 “해석학은 오직 해체의 길 위에서 자신의 과제를 실현할 수 있다.”<sup>3)</sup>

- 
- 1) 시몬 드 보부아르, 『노년-나이들의 의미와 위대함』(홍상희·박혜영 옮김), 책세상, 2002, 8쪽 참조.
  - 2) 장영란, 「늙음과 죽음의 윤리」, 『서양고전학연구』 제35권, 서양고전학회, 2009, 124쪽. 장영란은 ‘나이들’이 삶의 문제들 중에 “가장 철학적으로 사유될 수 있는 주제이면서도 가장 비철학적으로 사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철학적으로 실천되는 주제”라고 규정한다. 먼저 나이들은 “인간의 한계 상황인 죽음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철학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나이들은 죽음을 신체적 징후를 통해 예시해 주는데,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체험하게 되고 죽음 앞에서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진다. 나이들이 “가장 비철학적으로 사유되고” 심지어 “반철학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이유”는 나이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인상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들을 제대로 담론화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의 궤도에서 자연스럽게 수용되지 못하게 되며, 여기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나이듦’(Älterwerden)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학적, 심리학적, 철학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sup>4)</sup>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이지만 우리의 삶이나 사회생활에서 상수(常數)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철학이 이 새로운 현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 글은 이러한 새로운 현실에 익숙해지려는 철학의 자기성찰의 의미를 담고 있다.<sup>5)</sup>

### 1.1. 나이듦을 제대로 성찰할 수 있는 나이가 있는가?

이 물음에 엄격히 논리적인 답이 있을 수 없겠지만 직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조건들은 아래와 같다. 먼저, 상대적으로 공평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하고<sup>6)</sup>, 둘째, 나이듦을 고민하기 시작한 나이, 즉 나이듦이 자신의 삶에서 문제가 되는 시기이며, 마지막으로 대체로 지나온 삶의 과정을 회환과 더불어 반추하면서 삶의 의미를 결산할 필요가 있을 때일 것이다.<sup>7)</sup>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한한 존재로서 인간에게 나

3) M. Heidegger, “Phänomenologische Interpretationen zu Aristoteles(Anzeige der hermeneutischen Situation)”, *Dilthey-Jahrbuch* 6(1989), 249쪽.

4) 세월은 사전적으로 세 가지 기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흘러가는 시간’, 둘째, ‘지내는 형편이나 사정, 또는 그런 재미’, 셋째 ‘살아가는 세상’이 그것이다. 물론 이 글에서는 세월을 주로 ‘나이듦’과 ‘노년’의 문제와 연관해서 조명하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 의미가 이런 주제와 모두 밀접하게 연관되어 ‘삶의 문제’를 형성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5) 조르주 미누아, 『노년의 역사』(박규현/김소라 옮김), 아모르문디, 2010. 43쪽 아래 참조. 물론 옛날에도 ‘나이듦’의 현상과 문제가 존재해왔다는 점에서 이것이 새로운 주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시대마다 나이듦 혹은 노년의 문제(위상)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해(평가)되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새로운 현상으로서의 나이듦에 대한 적절한 이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6) 빌헬름 슈미트, 『나이든다는 것과 늙어간다는 것』(장영태 옮김), 책세상, 2014, 7쪽 아래 참조. 슈미트는 그가 70이 되어 처음 나이듦에 대해 강연을 했는데, 그때 청중의 반응은 “멋진 강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선생님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겠지요!”라는 것이었으며, 그날 강연의 내용도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나이 들어 가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얻게 된 깨달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이 사태를 어떻게 수용하는가라는 문제는 결국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물음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과 연관해서 여성학자인 박혜란은 그녀 나이 스넌다섯에 출간한 에세이집 『나이듦에 대하여』에서 흥미로운 지적을 하고 있다. 그녀가 서른아홉이 되자 나이가 그녀에게 느닷없이 말을 걸어오면서 ‘이젠 그냥 주어지는 대로 나이를 먹지 말고 어떻게 나이를 먹을지 좀 생각할 때가 아니냐며’ 부추겼다고 한다. 이때부터 그녀는 새로운 계획을 실행하려고 바쁜 인생을 보내게 된다. 그런 그녀가 가족을 포함한 주위사람이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경험하고, 그녀 나이 스넌이 되었을 때 이젠 자꾸 몸이 말을 하고 싶어 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녀는 “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자신의 나이듦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눈을 얻었다고 한다.<sup>8)</sup> 결국 나이듦은 인간의 보편적 현상이면서도 이를 감지하는 몸이 말을 걸어줄 때에야 비로소 실존적 물음으로 자리잡게 된다. 점차 나이 들면서 힘겨워 하는 몸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박혜란은 “글은 이제 글이 아니라 삶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sup>9)</sup>

그러나 세 번째 조건과 연관해서 우리의 고민은 이러한 나이듦을 성찰하는 시도가 단순히 노년을 위한 담론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에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도 세월을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편성이 역설적으로 나이듦을 철학적 주제로 만든다. 또한 인간은 ‘준비하는 것이 전부이다’(Bereit sein ist alles)라는 표현처럼 어느 때 ‘시간의 선택’을 받을지 아무도 모른다.<sup>10)</sup> 이런 배경에서 에피쿠

7) 장영란, 위의 논문, 124쪽. 대체로 사람들이 나이듦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죽음에 임박해 있기 때문이며, 죽음이 모든 것의 종말이라고 생각하기에 두려워한다. 나이듦은 일반적으로 육체와 연관된 고통이나 기능적 장애를 통해 인식되는데, 이러한 인식은 죽음을 포함한 실존적 고민으로 이어진다.

8) 박혜란, 『나이듦에 대하여』, 웅진닷컴, 2001, 6쪽 아래.

9) 같은 책, 9쪽.

로스의 다음과 같은 표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젊을 때는 철학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철학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영혼을 보살피는 데는 너무 이른 때도 너무 늦은 때도 없는 것이오. (...) 그러니 우리는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철학을 해야 하오. 후자의 경우에는 지난날의 회상을 통해 선을 접하며 젊어지기 위해서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젊더라도 닦쳐오는 일 앞에서 노인이 그러하듯 당당해지기 위해서요.”<sup>11)</sup>

### 1.2. ‘세월의 해석학’이란?

나이들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세월의 해석학’은 삶을 마치 고정된 대상처럼 파악하거나 규정하려는 태도를 지양하고, 있는 그대로 기술(記述)함으로써 삶을 ‘있는 그대로’(originaliter) ‘드러내주는’(sehen-lassen) 길을 걷고자 한다.<sup>12)</sup> 흘러가는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파악할 수 없는 대상을 파고들려는 우매함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생동적 체험(Erlebnis)과 내

10)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창우 외 옮김, EJB, 2006, 219쪽 참조. 아리스토텔레스가 “소년이 수학자가 될 수는 있어도 현인(sophos)이나 자연철학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수학적 대상들은 추상을 통해서 있는데 되는 데 반해, 다른 경우에는 그 원리들이 경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과 연관시켜 보면 삶의 문제는 논리가 아니라 결국 인생의 경험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처럼 보인다.

11) Diogène, Laërce, *Vie, doctrines et sentences des philosophes illustres*, éd. Garmier-Flammarion, 1965, t, II, p.258(『노년의 역사』, 122쪽에서 재인용).

12) W. Dilthey, *GS XIX*. 330쪽, M. Heidegger, *Sein und Zeit*, 34쪽 그리고 O. F. Bollnow, *Studien zur Hermeneutik*, Bd. I, 333쪽 참조. ‘드러나게 함’(Sehen-lassen)이 왜 기술(記述, Beschreibung)이라는 방법과 연관되어지는지는 자명하다. 우선 딜타이의 표현을 살펴보자. “우리가 가리키는 것은 삶 자체이다. 우리는 초월적인 어떤 것을 해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을 드러나게 하려 한다. 그 삶이 있는 그대로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추구한다. 삶을 기술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또한 하이데거는 현존재분석을 “그것 자체에서부터 내보이고 있듯이, 그렇게 그것 자체에서부터 드러나게 함”이라 규정한다. 이에 대하여 볼노는 “이 드러나게 함의 수단이 (...) 현상학에서 예술로 발전된 기술(記述)”이라고 말한다.

적 각성(Innewerden)을 동반하는 삶의 이해는 삶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 아니다. 또한 흘러가는 삶을 고정시킬 수도 없고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삶을 전체로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순환에 대한 하이데거의 언명처럼 바다에서 파도의 흐름을 잘 타야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듯이 삶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듯 같이 동행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때론 개념적인 철학적 표현보다 유행가가 삶을 더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삶은 유행(流行)하는 것이고, 그것을 주제로 삼는 것이 유행가이다. 유행가는 ‘흘러가는 것’의 본성을 정서적으로 잘 포착하여 드러내주는 시대적 발견술(Heuristik)이다.<sup>13)</sup> 그러나 유행하는 것의 본질은 대체로 한 시점에 붙들려 서 있는 인간의 시각에서는 이문세의 노래처럼 “알 수 없는 인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발견술의 한계이자 역할이다. 이렇게 삶은 단지 제각기 사연을 안고 음미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과정은 또한 결코 종결될 수 없다.<sup>14)</sup>

최근 한 원로 정치인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허업’(虛業)이라고 토로했다. 모든 것이 일장춘몽인가. 흐르는 시간은 모든 것을 깨우쳐주는 ‘존재의 계시’이자 모든 것을 앗아가는 ‘존재의 준엄함’인가.<sup>15)</sup> 때론 인

13) S. L. Sorgner/O. Fürbeth(Hg.), *Musik in der deutschen Philosophie*, Stuttgart 2003, 187쪽 아래 참조. 가다머를 비판하면서 주홀라(B. R. Suchla)는 음악을 “질서부여의 수단, 즉 세계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사유로 하여금 몰락과 갑작스러운 단절, 갑작스러운 종말, 그야말로 세계의 덧없음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규정한다.

14) 이 노래는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라고 가사로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장 아메리의 『늪어감에 대하여』(김희상 옮김, 돌베개, 2014)에는 「더는 알 수 없는 세상」이라는 글도 포함되어 있다.

15) 조광제, 『의식의 85가지 얼굴. 후설 현상학의 주요개념』, 글항아리, 2008, 95쪽 아래 참조. 조광제는 후설의 체험류를 설명하면서 “참으로 묘한 일 중의 하나는 제 아무리 견고한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 속에 ‘담그면’ 물렁물렁해지다가 급기야 유체처럼 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심리나 정신은 말할 것도 없고, 사물은 물론이고, 신, 순수자아, 심지어 논리적 범주나 기하학적인 도형들까지도...”라고 말하고 있다.

간은 생로병사로 분절화되는 흐름 속에 마냥 내맡겨진 무상한 노리개처럼 보인다. 인류는 이 삶의 무상함을 바라보며 불멸의 희구를 철학, 과학, 예술 그리고 종교 등에서 표현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정신적 상황에서 불멸의 희구를 새롭게 드러내는 것은 벅찬 일이다. 그래서 세월의 해석학은 삶의 세계로 돌아와서 너무나 일상적이면서도 동시에 보편적인 현상인 ‘나이듦’의 인간학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서 인간학적 의미란 인간 삶의 근본적 한계이자 동시에 발전적 계기로서 나이듦을 바라본다는 의미이다. 세월의 해석학이 나이듦과 대화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는 대화상대방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한다. 가다머의 표현처럼 “타자가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해석학의 영혼”<sup>16)</sup>이기에 세월의 해석학은 고단한 인간의 삶에서 나이듦의 긍정적 의미를 부각하려는 시도이다.

## 2. 나이듦의 의미와 인상

### 2.1. 나이듦의 긍정적 의미: 자연적 의미와 문화적 의미

“나이듦이 갖는 현대의 문제는 나이듦이 의미없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것, 심지어는 되도록 일찍 발견해서 도려낼 수 있을 때까지 단호하게 싸워야 할 병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시각(해석)은 빌헬름 슈미트(Wilhelm Schmid)에 따르면 “영원히 젊은 자아를 선전·선동하는 현대의 과잉된 자아중심주의”가 초래한 부정적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해석만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다른 해석이 등장할 필연성도 생긴다”고 첨언한다. 이는 “해석의 단일화는 삶을 위협하기 때문이다.”<sup>17)</sup>

16) 장 그롱댕, 『철학적 해석학 입문』(최성환 옮김), 2008, 한울아카데미, 263쪽.

17) 빌헬름 슈미트, 위의 책, 15쪽.

그래서 그는 “해석의 단일 문화들이 삶을 잠재우면, 그에 반하는 이견만이 그 삶을 [다시] 깨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8)</sup> 이런 배경에서 슈미트는 나이들의 긍정적 의미를 제시하려고 시도한다.

슈미트는 나이들의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하는데 하나는 “자연적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적 의미”이다. 먼저 “자연적 의미는 각자가 자기 인생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차츰 익숙해지는 것일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이라 불리는 교만하면서도 민감한 작은 피조물에게 대한 ‘자연의 배려’이다.” 그에 따르면 자연도 ‘젊음은 영원히’라는 원리를 알고 있지만, 자연은 다만 현대 문명과 아주 다르게 대응할 뿐이다. 일종의 순환을 통해 자연은 낡은 생명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생명을 생성해내면서 영원한 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비록 자연이 단숨에, 이상적 죽음이라는 할 수 있는 일종의 단절을 통해 모든 생명을 종결시킬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죽음이 많은 생명에게 실현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제공하는 “나이들이라고 하는 느긋한 과정”으로서의 선물이다. “생명의 성장을 돕고, 경험을 이어 전달하며, 새로운 경험도 만들어내기 위하여, 시간은 그렇게 머문다.”<sup>19)</sup>

나이들의 자연적 의미는 특히 ‘자기배려’ 혹은 ‘자기 자신과의 친교’(epimeleia heauton, Freundschaft mit sich selbst)라는 고대의 삶의 기예의 관점에서도 새롭게 조명될 수 있다. 자기 자신과 친숙해진다는 것은 고유한 시간과 친숙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생애(Lebenszeit)의 제한성이 위협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다. 늙어가는 인간은, 특히 동년배가 죽을 때, 제한된 생애의 냉혹함을 경험한다. 오래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견뎌냈다는 것을, 그것은 다시금 더 고독하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친구들이 하나 둘 사라지게 됨으로써 주위에 과거를 함께 보냈던 인간을 항상 적게 가

18) 같은 책, 16쪽

19) 같은 책, 같은 곳.

지기 때문이다.<sup>20)</sup> 그러므로 “노년의 삶의 기예”(die Lebenskunst des Alters)는 생애를 제약하는 이러한 고독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sup>21)</sup>

슈미트가 제시하는 나이들의 두 번째 의미는 “문화적 의미”이다. 그에 따르면 이 의미는 “지금의 삶을 좀 더 수월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정신적 원천을 발견”하는 데에서 성립한다. “마음의 평정(Gelassenheit)”이 바로 대표적인 원천 중 하나이다. 오늘날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쉽게 얻을 수 없는 사회적·시대적 환경 속에 살고 있다. “현대사회는 인간들을 욕망으로 선동하고 교란하며 인생을 심하게 소용돌이치게 하고 있다. 그 결과 마음의 평정에 대한 사람들의 동경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 마음의 평정은 격렬한 행동주의와 과학기술적 낙관주의의 희생물이 되었다. 적극적인 행동과 과학기술의 낙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미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 자리에 들어서 ‘가장된 태연함’은 마음의 평정이 주는 인간적인 파스함과 깊이에 대한 회상을 여전히 일깨운다.”<sup>22)</sup> 슈미트에 따르면 팍팍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정은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추구할만한 가치가 있다. “마음의 평정은 확실히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얻어야 할 하나의 수확이다. 특히 삶이 더 각박해지고 곤궁해지기 쉬운 나이라면 더욱더 추구해서 얻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중요한 점은 마음

20) F. 펠만, 『행복의 철학사』(최성환 옮김), 시와 진실, 2012, 237쪽 아래 참조. 프랑스의 현상학자 레비나스(E. Lévinas)는 현상학적 전통의 주관중심적 시간과약에 반해 삶의 지평은 일차적으로 기획하는 주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난다는 견해를 표방한다. 이 통찰은 고통스럽게도, 그의 전체 삶 혹은 그 삶의 일부를 함께 보낸, 특별한 의미를 가진 타자의 죽음에서 입증된다.

21) 같은 책, 238쪽. 독일어 ‘Alter’는 나이 혹은 연령이라는 의미와 노년 혹은 고령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질풍노도의 젊은 청년들이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나이의 문제는 노년이라 할 수 있다.

22) 빌헬름 슈미트, 위의 책, 17쪽 아래

의 평정을 얻는다는 것이 어찌면 나이가 들어가면서야 비로소, 그러나 어렵사리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이다.<sup>23)</sup>

## 2.2. 나이듦의 부정적 인상

슈미트가 상대적으로 나이듦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읽어내려고 노력하는 반면 장 아메리(Jean Améry)는 그의 책 『늙어감에 대하여』의 부제 “저항과 체념사이에서”가 암시하듯 매우 부정적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젊어서 죽고 싶지 않은 사람은 늙을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라는 경구를 통해 아메리는 인간 삶에 결부된 필연성을 표현한다. “이 말은 무의미함과 명확한 의미와 심오한 의미가 함께 녹아든 상투적 문구 가운데 하나다. 누구도 젊어서 죽고 싶지 않으며, 아무도 늙으려 하지 않는다. 참으로 하나마나한 진부한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허망함,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헛헛함, 자기 자신을 갉아먹어 들어가는 우리 존재의 심오한 차원이 곁들여지면서 더할 수 없이 선명한 진리로 울림을 남긴다.”<sup>24)</sup>

아메리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진실을 직면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슬픈 진실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헛된 기대에 휩싸이지 않고 인간답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아메리에 따르면 나이를 먹는다는 것, 이는 곧 우리 존재의 부정인 동시에 ‘존재하지 않음’으로 향해 나아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늙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성적 위로”도 쓸모가 없으며, 그것은 “황량한 인생의 시대”를 드러낸다. “늙어가며 우리는 세계가 사라지고 오로지 시간만 남는, 내면만 텅그러니 끌어안은 의미가 된다. 나이를 먹으며 우리는 우리 몸이 낫설어짐과 동시에 그 둔중한 덩어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깝게 느

---

23) 같은 책, 18쪽.

24) 장 아메리, 위의 책, 209쪽.

껴진다. 삶의 정점을 넘겨버린 우리에게 사회는 스스로 그 어떤 일도 계획하지 못하게 몰아세운다. (...) 문화는 우리가 정신의 낡은 고물로 시대의 쓰레기장에 버려져야 마땅하다고 옥박지른다.”<sup>25)</sup>

나이듦과 죽어감이 함께 병행한다는 사실은 삶을 영위하는 인간에게 “그야말로 기이하고 감당하기 힘든 부조리한 요구”<sup>26)</sup>이며, 우리를 일반적으로 굴복시키는 사태로서 “모든 기대를 무산시키는 무리한 사실 (factum brutum)”이며, 결코 우리와 타협하지 않는다.<sup>27)</sup> 그래서 인간이 이 사태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sup>28)</sup> “우리는 그저 겸손을 강요받은 굴종으로 늙어 죽어가는 자신을 바라볼 뿐이다. 치유가 불가능한 병의 모든 증상은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감염된 죽음이라는 이름의 바이러스가 별이는 알 수 없는 작용 탓으로 빚어진다. 젊었던 시절, 바이러스는 독성을 발휘하지 않았다. 그런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나오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나이를 먹어가며 죽음이라는 이름의 바이러스는 잠복해 있던 은신처에서 빠져나온다.”<sup>29)</sup>

인간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간을 기대하며 환희와 열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반대로, 벗어날 수 없는 고통과 괴로

25) 같은 책, 209쪽 아래.

26) 같은 책, 210쪽.

27) O.F. Bollnow, *Philosophie der Erkenntnis*, Erster Teil, 2. Aufl., Stuttgart 1981, 124쪽 아래. 이에 대해 즐고, 「죽음의 해석학: 사태로서의 죽음」, 『철학탐구』 제 16집, 중앙철학연구소, 2004 42쪽 참조.

28) 장 아메리, 위의 책, 93쪽 아래. 아메리는 “늙어감은 우리에게 그런 성찰을 피할 수 없게 만들며, 또 성찰을 감당할 능력도 준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논리로나마 더 나은 세상을 그려보려 했던 사색은 더 이상 우리의 몫을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다. 왜냐하면 “세계는 늘 논리로부터 멀리 달아”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당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존재의 소외’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일 하던 대로’의 것을 충직하게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29) 같은 책, 210쪽.

움에 휩싸일 때 죽음을 생각한다. 레비나스는 인간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고독의 비극’을 형성하는 결정적 요소를 순수하게 바라보게 되며, 이 결정적 요소는 그 어떠한 향유의 무아경을 통해서도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온다고 말한다. 고통은 그것이 회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토록 뼈아프며, 삶과 존재를 궁지로 내몰고 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불가능한 무(無), 즉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닐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호소와 더불어 죽음에의 가까움이 동시에 존재한다.<sup>30)</sup>

이제 인간에게 남은 것은 고통 속에서 맞이할 최후의 순간이다. 그래서 사실 어떤 위로도 이러한 상황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죽음은 아무 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죽고 나면 모든 게 무(無)일지라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 오로지 우리만의 문제일 따름이다.”<sup>31)</sup>

### 2.3. 노인에 대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위에서 언급된 두 저자의 관점은 모두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간된 저술에 포함된 것이다. 이제 서양철학의 위대한 두 철학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관점을 보여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플라톤은 현실의 묘사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그는 존재가능하거나 마땅히 존재해야 할 모습의 노인들을 고려한다. 그가 제시하는 노인 모델인 케팔로스는 시라쿠사이 출신의 부유한 상인으로서 이상적인 조건 속에서 살고 있다. 그는 건장하고 교양이 있

30) E. Levinas, 『시간과 타자』(강영안 역), 문예출판사, 1996, 75쪽. 레비나스는 특히 신체적 고통과 괴로움은 실존에의 참여에 대해서, 즉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떤 오해도 일어날 수 없으며, 신체적 고통은 그 자체가 그것의 각 강도에 따라 존재의 순간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불가능성, 즉 ‘무(無)의 불가능성’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도덕적 괴로움에서는 일종의 품위와 점잖음의 태도를 보존할 수 있고 따라서 이미 (고통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에 대해, 줄고, 『죽음의 해석학』, 38쪽 아래 참조).

31) 같은 책, 같은 곳.

으며, 높은 수준의 삶을 영위한다. 소크라테스의 표현처럼 시인들이 ‘노령의 문턱에 이르렀다’는 나이의 케팔로스는 신체적 힘은 쇠약해지고 있지만 이것이 그를 두렵게 하지는 않는다. 이는 그가 “육신과 관련된 다른 즐거움이 시들해짐에 따라 그만큼 대화에 대한 욕망과 즐거움이 증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가 케팔로스에게 어떤 삶의 여정을 걸어왔는지 묻자 그는 (소포클레스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노년에 대해 한탄하거나 비탄에 잠기는 대신 욕망이라는 “흡사 광포한 어떤 주인한테서 도망쳐 나온 것”만 같은 느낌 속에서 이제야 비로소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을 향유하게 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한다.<sup>32)</sup>

이에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다양한 저술에서 노년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 그에게 노년은 지혜도 정치적 능력도 보증하지 않는다. 노인들의 경험조차도 긍정적 요소가 되지 못한다. 그것은 흔히 나이로 인해 둔감해진 정신 속에 축적된 오류들의 집합일 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체와 마찬가지로 정신도 노년에 복종하고 만다.”<sup>33)</sup> 라고 『정치학』에서 이야기한다. 또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그는 노인들을 악의 화신처럼 묘사하고 있다. 노인들은 탐욕스러우며, 계산적이지 않은 순수한 우정을 모른다. 그들은 이기적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이득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에게 사랑이란 싫증으로 인해 사라져 버리거나 습관적인 것일 뿐이다.<sup>34)</sup> 『수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야말로 노인들의 모든 결점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노인들은 소심하고 머뭇거

32) 플라톤, 『국가』(박종현 역주), 서광사, 1997, 56~60쪽 참조, 그는 부가 노년의 행복을 위한 삶에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간주한다.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가난하고서는 노령을 힘들게 씹 수월하게 견디어 내지 못하겠지만,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부유하다고 해서 결코 쉬 자족하게는 되지 못할 것이니 말입니다.”

33)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이병길, 최옥수 옮김), 박영사, 2003, 76쪽. 여기에는 “심경(心境)은 육체와 마찬가지로 연령에 지배된다.”로 번역되어 있다.

34)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창우 외 옮김), EJB, 2006, 128, 282, 288, 289쪽 등 참조.

리고 의심이 많고 인색하고 겁이 많고 이기적이고 비관적이고 수다스럽고 탐욕스럽고 침울한데, 이는 “그들은 오랜 세월을 살았고, 사는 동안 여러 번 잘못을 저지르거나 나쁜 짓을 했으며,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만사가 뒤엉켜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sup>35)</sup>

#### 2.4. 중간결산

우리는 위에서 빌헬름 슈미트와 플라톤이 제시하는 나이들의 긍정적 의미와, 장 아메리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려내는 부정적 인상을 대비시켜 보았다. 슈미트의 주장은 그의 책의 서두에 나오는 내용이고, 아메리의 주장은 그의 책의 말미에 나오는 내용이다. 전자가 늙어감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언어야만 하는) ‘마음의 평정’을 이야기한다면, 후자는 그 책의 부제처럼 ‘저항과 체념사이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죽음의 길을 보여준다. 그런데 평정과 체념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을까. 아메리카 책의 마지막 장에 붙인 소제목이 「위로가 아닌 진실」이다. 그렇다면 진실이 말해주는 위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며, 처절한 자기인식에서 오는 것이 단지 회한과 반감뿐인가. 또한 아메리는 선 중반에, 슈미트는 예순이 넘어 자신의 책을 썼는데, 이것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른다.<sup>36)</sup>

35) 조르주 미누아, 위의 책, 130~133쪽 참조.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상운 옮김), 도서출판 보성, 2007, 245쪽 아래 참조, 여기에서는 이 인용문이 “오래 살아오면서 자주 배반을 당했고, 혹은 잘못된 생각으러 대부분의 일에서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노인들은 어떤 일에 확신을 갖지 않으려 하며,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에서 원기 왕성하지 않다”로 번역되어 있다.

36) 버트런드 러셀, 『인간과 그 밖의 것들』(송은경 옮김), 오늘의 책, 「노령의 위협」, 39쪽 아래 참조. 러셀은 59세때 “과학적 능력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끈 결과가 이미 표면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당시 노동당 정권의 장관 절반 이상이 60살 이상이었던 상황에서 “자신은 운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불평하고 읽다. 이런 판단의 배경에는 같은 동자들을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노인들은 지적으로는 변화의 필요성을 믿을지 모르지만 실제의 변화를 견뎌낼 수 없다는 그의 부정적인

늙은 플라톤의 이상주의와 젊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주의는 노년에 대해서도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는 플라톤이 여든에 『법률』을 썼던 데 비해<sup>37)</sup>, 아리스토텔레스가 쉰에 가까이 되어 노년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이 이상적인 관점에서 현실의 상황을 좋은 쪽으로 뒤집어 놓은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만을 묘사하며, 객관적인 상황과 더불어 명백히 노인들에게 비호의적이었던 당시의 문화와 선입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38)</sup>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상이한 두 가지 관점이 모두 인간 삶의 본질적 측면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sup>39)</sup> 인간의 삶이 이상과 현실, “기쁨과 분노, 두려움과 희망, 동경과 환멸과 같은 모순된 극단 사이에서” 고동치는 “양극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면 여기에 삶의 한계와 동시에 발전적 계기가 함께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sup>40)</sup>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인상’이라는 대조가 드러나듯 늙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모든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늙으면서 품격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드물지만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닐까. 오늘날 인간이 누리는 위상과 인간성은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인간은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끊임없이 극복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상적 인간상을 추구하여 왔다. 여기에는 당연히 노년의 상(像)도 포함될 것이다.

---

시각이 깔려 있다.

37) 하지만 케팔로스가 등장하는 『국가』 1권은 플라톤이 아주 젊은 나이에 집필한 초기작품에 속한다.

38) 조르주 미누아, 위의 책, 133쪽.

39) 서양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나이듦’(노년)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평가에 대해서는 조르주 미누아, 『노년의 역사』와 장영란, 「늙음의 현상과 여성주의 윤리」(『동서철학연구』 제51집, 한국동서철학회, 2009, 301쪽 아래)을 참조.

40) 벨헬름 슈미트, 위의 책, 24쪽.

### 3. 세월의 역설

#### 3.1. 삶은 노리개인가 놀이의 주체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삶, 그것은 죽음에의 의지를 자신으로부터 끊임없이 내치는 것을 의미한다. 삶,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약하고 노쇠한 모든 것에 대해 잔혹하고 냉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삶, 결국 그것은 죽어가는 것, 고통받는 것, 노쇠한 것에 대한 경건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끊임없는 살인자가 아닐까? 하지만 늙은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살인하지 말라.’<sup>41)</sup> 시간이 경과하면 일과 사건이 완성되고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 흐름이다. 그러나 삶의 시간은 항상 그렇지 않은 삶다. 삶은 시간이 경과하면 죽음의 길로 향한다. 이 죽음의 길이 그러나 삶의 완성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죽기 위해 산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삶의 완성은 그것이 있다면 물리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시간의 완결’이 아닌 방향에서 ‘삶의 완성’을 사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이 태어남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시간의 노리개이다. 그러나 이 유한성을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으로 마무리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놀이의 주체로 수행하는 삶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전향은 역설적이지만 유한성에서 잉태된다. 결국 유한성은 완성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는데, 이는 유한성이 없다면 삶의 완성을 위한 ‘마무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42)</sup>

인간들은 아무도 늙는다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

41) F. 니체, 『즐거운 학문』(안성찬·홍사현 옮김), 책세상, 2005, 101쪽.

42) 폴 리피르, 『폴 리피르, 비판과 확신』(변광배/전종윤 옮김), 그린비, 2013, 299쪽. 리피르에 따르면 철학에서 ‘유한성’이라 부르는 것은 ‘끝’과 ‘한도’의 구별과 관련이 있다. “‘한도’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두 측면인 ‘그 가까이로’ 그리고 ‘그 너머로’ 향합니다. ‘끝’이 있을 때, 사람들은 단지 ‘이쪽’안에 있을 뿐이고 ‘저 너머’를 채울 뭔가를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만 고달픈 삶의 길을 끊임없이 가야하다면 그 또한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유한성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적절한 선에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노직(R. Nozick)은 마지막 순간까지 삶에 매달리고 싶은 충동을 이해하지만 그와 다른 길이 더 매력적이라고 주장한다. “충분히 산 뒤에도 여전히 힘과 예민함과 과단성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위협에 내맡기거나, 타인이나 어떤 고상하고 품위 있는 대의를 위해 바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그는 노년에 접어들은 사람들이 “순순히 죽을 준비를 하거나 생의 소멸에 분노하는 대신, 생의 마무리 단계에서 더욱 밝은 빛을 발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sup>43)</sup>

### 3.2. 세월의 반성적 특성(Reflexibilität)

1970년대 중반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라고 체념적인 목소리를 냈던 서유석은 이제 일흔이 되어 최근 “너는 늙어봤니 나는 젊어봤다”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세월의 의미를 다시 반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월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그것은 결코 종결될 수 없는 의미부여와 의미변경의 과정으로 점철된다. 대체로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애로 취급하는 것을 싫어하고 노인들은 자신을 늙은이 취급하는 것을 싫어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은 안정된 생활을 하는 중년들이 부러울 수 있으며, 젊은 날 생존경쟁에 몸부림치면서 그나마 살만한 중년들은 그들의 잃어버린 청춘을 그리워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이는 세월의 어떤 지점에서든 만족할 수 없는 삶의 굴레다.

인간은 시간적 존재이면서도 시간 자체를 ‘종종’ 망각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스스로 시간을 능동적으로 분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주체로 여기

43) 로버트 노직, 『무엇이 가치있는 인생인가: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질문』(김한영 옮김), 김영사, 2014, 34쪽.

지 자신이 시간의 굴레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은 변하지 않고 주위의 모든 것만 바뀐다고 착각을 한다. 우리는 어릴 때 아버지는 아버지이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인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와 보니 아버지가 나였고 할아버지가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나 이 또한 금방 망각하면서 현재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문제에 골몰하곤 한다. 어쩌면 인간은 영원히 현재에 종속되어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방향할 운명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젊다고 자만할 이유도 늙었다고 한탄할 이유도 없다. 젊어서나 늙어서나 우리의 삶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다. 젊어서는 수많은 고민들과 과제들이, 늙어서는 육체적 고단함과 이별의 두려움이 인간을 괴롭힌다. 그래서 인간에게 때로 어깨의 짐을 한꺼번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유혹도 생겨난다. 어쨌든 남은 것은 시간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세상은 공평해 보인다.

시간과 삶의 관계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통찰함으로써 인간이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순차적(Nacheinander)이라는 형식에서 삶은 만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삶은 실행 자체(den Vollzug selbst), 즉 현실의 유일한 형식을 변화하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서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과 친숙해진다는 것은 삶의 태도를 변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먼저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것은 이른바 ‘시대정신’(Zeitgeist)을 자신의 고유한 삶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인간은 환멸을 느끼면서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 그 다음 우리는 운명의 시련들에 의해 냉혹한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정복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무한히 많은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은 삶의 불공평함에 대한 어떤 보호도 제공하지 않는 ‘공허한 공간’에 불과하다. “단지 시간에서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자, 즉 자신의 것, 필요한 것을 행하는 자만이 세계의 냉담함에 대항하여 자신의 자유를 보존할 수 있으며, 우연성에 대항하여 삶

의 성취와 같은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sup>44)</sup> 또한 “자신의 것을 행한다는 것”은 임의적인 것을 욕구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시간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sup>45)</sup>

### 3.3. 세월의 요구와 노년의 과제

시간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Die Zeit lässt sich nicht ‘machen’)고 한다.<sup>46)</sup> 시간은 삶의 현실을 결정하는 구성적 구조로서 그것의 과정성에서 냉혹한 것이다. 시간의 가차없는 진행에는 예외가 없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시간의 이러한 일방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석구성들(Interpretationskonstrukte)로의 관념적인 해결이 약속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시간에서 더 많이 “쟁취하게”(herausholen) 된다는 점이다. 순간은 우리가 다른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을 하도록 명령한다. 여기에 그때그때마다 선택을 통해 살아가는 인간들이 신선하고 명료한 것으로 경험하는 지양할 수 없는 ‘시간의 현실’이 놓여 있다. “누군가에게 시간이 다가오면 그것이 비록 고통스러운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는 자기 자신으로 다가간다. 시간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똑 같다: “준비하는 것이 전부이다.”<sup>47)</sup>

우리의 삶은 외면적으로는 출생에서 죽음을 향해가는 선형적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수많은 시간들을 떠올려보면 우리의 삶은 겹겹이 쌓인 고통과 행복, 미움과 사랑, 좌절과 성취와 같은 복

44) F. 펠만, 위의 책, 238쪽 아래.

45) 같은 책, 239쪽. “(...)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을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과의 교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규칙을 통해 삶이 세월이 흘러간 후에도 살 보람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표본분포(die Parameter)를 창출할 수 있다.”

46) 이 표현은 ‘만들어 낼(herstellen) 수 없다’ 혹은 ‘마음대로 조작할(manipulieren) 수 없다’는 의미로 번역가능할 것 같다.

47) 같은 책, 237쪽.

잡한 계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우리의 대부분의 삶의 여정에서 많은 일들과 문제들은 우리를 항상 ‘지금’ 그리고 ‘여기’에 붙잡아두고 있었다. 그러나 노년의 삶에 접어들면 삶은 복잡성에서 단순성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노년의 삶이 무료해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은 ‘지금’과 ‘여기’를 벗어나 삶의 전체를 회고하면서 마무리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의 배려’가 주어진다. 이 때 시간의 과정성은 젊은 나이에 예고없이 닥치는 위협보다 그렇게 냉혹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어쩌면 얼마 남지 않은, 그래서 함부로 탕진할 수 없는 노년의 삶에서나 주어질지 모른다. 더욱이 이런 마무리를 노직의 충고처럼 의미있는 일로 할 수 있다면 더 큰 행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에피쿠로스가 권유하는 것처럼 철학을 통한 영혼의 돌봄은 이런 마무리를 위해 좋은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최근 ‘노년의 인문학’이 새롭게 부각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sup>48)</sup>

### 3.4. 세월의 흔적과 타자의 시선

사람들이 세월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아마 머리색의 변화일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흰머리가 생겨나면 처음에는 다수 안의 소수를 징벌하는 길을 택하다가 소수의 징벌이 전체 지형도를 망가뜨릴 것처럼 보이면 전체를 도색하는 길을 택한다. 세월과의 전면전은 규칙적으로 전열을 정비하고 관리하면서 유지된다. ‘로맨스 그레이’라는 위토가 있지만 까만 머리의 매력에 미치지 못한다. 확실히 염색은 사

48) 이와 연관된 연구는 김기봉, 「인생 연극 종막(終幕)으로서 노년 : 노년의 인문학을 위하여」, 『드라마연구』 35집, 한국 드라마학회, 2011, 김기봉, 「고령화에 대한 역사적 성찰 : 노년의 인문학을 위하여」, 『철학과현실』 제91호, 철학문화연구소, 2011, 유병래, 「노년을 위한 시민인문학 ; 장자철학에서의 노년의 삶」; 박영택, 「노년을 위한 시민인문학 ; 한국 미술 속에 재현된 노인이미지」, 『시민인문학』 제 22권, 경기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2012 등이 있다.

람을 달라보이게 하며 나름 젊음의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자기만족을 위해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편한 시선을 제공하기 위해 염색을 한다. 이런 면에서 염색 자체는 취향이자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이기도 하다. 직업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접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깔끔한 외모가 권장되며 여기에 염색도 포함된다. 또는 부모님이 살아 계신 경우 자식이 흰머리를 보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름 설득력이 있다. 여하튼 이것은 우리 인간의 나이듦이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연령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적 연령이란 “타인의 시선이 우리에게 측정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즉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선택이 관건이 아니라 “남과 그 소유를 놓고 끝없이 다툼을 벌일 때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늙어서야 비로소 온전하게 의식된다”고 아메리는 단언한다.<sup>49)</sup>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경향인지 모르지만 문화적으로도 노년의 외모 문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1930년생의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1942년생의 해리슨 포드가 등장한 영화들에서 그들의 깊게 파인 주름살을 보면 어색하지 않은데 과도한 보톡스 주입으로 팽팽해진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을 보면 거부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 최근에 펙고(fungo)로 유명해진 야신(野神) 김성근 감독이 검버섯 가득한 얼굴로 화면에 등장해도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마도 외모가 아니라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삶에 열중하는 자세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노년에 외모가 가져다주는 보너스가 없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중년에서부터 ‘항노화(抗老化, 안티에이징) 전선’을 펼치면서 저항하다가 결국 노년에 도달할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일까. 정

---

49) 장 아메리, 위의 책, 99쪽.

말 인간들이 혼자 편안하게 늙어갈 자유는 인간 사회에는 없는 것일까. 타자의 시선과 타자와의 다툼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마지노선은 필요하다. 젊은 청년이 애늬은이처럼 처신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노년에 필요이상으로 청년 타령을 하는 것도 어색해 보인다. 적당히 늙어가는 것, 세월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그리 나쁘지 않아 보인다.<sup>50)</sup>

#### 4. 나가는 말: 파르마콘(Pharmakon)으로서의 세월

고대 그리스 민족의 삶의 태도를 잘 드러내주는 “그노멘”(Gnomen)이라 불렀던 잠언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sup>51)</sup> “가장 현명한 것: 시간, 왜냐하면 시간은 모든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명한 것이 시간이지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오히려 인간은 세월 속에서 많은 것을 놓치면서 후회스러운 회한을 가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세월에 온통 대책없이 맡길 수만도 없는 것이 인생사이다. 그래도 세월은 약이다. 그것은 약도 되고 독도 될 수 있다는 의

50)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장 박상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항노화산업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나이 들어 피부가 검어지고 주름 좀 생기는 게 그리 흉한 건가. 그걸 이젠 달리 봐야 한다. 오랫동안 흑인의 외모는 열등한 것으로 간주됐다. 흑인운동이 일어났다. '검은 것이 강하다(Black is power)', '곱슬머리가 어떤가' 하면서 미에 관한 기준을 다르게 만들려고 했다. (...) 이제 전자화, 첨단화되기 때문에 노인이라고 힘이 없어서 못할 일은 없다. 물론 속도에서 처질 수 있지만, 그리 빨리 하지 않고 살살해도 되는 일이 많다. '노화'라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제대로 늙어가야 한다. '잘 늙다(age well)' 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이걸 '웰 에이징'으로 바꾼 것이다.”([why] 박은주의 快談(쾌설), 2011, 1.9, chosun.com)

51) F. 펠만, 위의 책, 49쪽. 그리스에서는 “그노멘”(Gnomen)이라 불렀던 잠언의 장르가 발전되었다. 그러한 속담과 같은 종류의 문장들은 ‘7현안’과 같은 탁월한 남자들의 것으로 돌려진다.

미에서 파르마콘이다.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 하지만 누가 우리 삶의 의사(醫師)로 자처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운명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작한 삶(던져진 존재)을 스스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삶의 완성(의미)을 위해 놓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놓이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삶은 채울수록 공허해지고 버릴수록 충만해지는 역설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죽음에서 삶으로 달려가라고 말했는지도 모른다. 언젠가 릴케(R. M. Rilke)가 <말테의 수기>에서 말한 것처럼 죽음은 삶의 ‘껍질’ 속에 은폐된 ‘과실’(果實)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죽음의 관점에서 요청하는 것은 인간에게 무리한 요구이다. 채움과 버림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는 없겠지만, 가끔 쉬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우리에게 큰 행운이 아닐까.<sup>52)</sup>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도 우리의 전체 실존이 감당해야할 운명의 계시라기 보다는 어둡고 고단한 길을 비춰줄 작은 등불과 같은 ‘삶의 기예’(Lebenskunst)로서의 철학이다. 이 기예가 세월의 의미와 나이의 과제를 일깨워준다면, 여기에 의탁해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가 가야할 길은 삶의 길이지 죽음의 길은 아니다. 노인의 삶에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이니 인간적인 것을 생각하라’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생각하라’고 권고하는 사람들은 따르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들이 불사불멸

52) 심혜련, 『탈역사시대의 기술적 이미지: 빌렘 플루서』, 『20세기의 매체철학』, 220쪽 참조. 매체학자인 빌렘 플루서는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종착역으로 향해 가는데, 종착역으로 가는 길에서 생기는 불안과 고독을 잊고 삶을 살 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소통을 한다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이중의 대화를 상정해볼 수 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 그리고 타자와의 대화 그것이다. 먼저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노력과, 그 다음 타자들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 자신의 삶을 방향설정할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또한 김경호, 『웰에이징: 노년의 삶에 대한 여현 장형광의 성찰』, 『동양고전연구』 제49집, 동양고전학회, 121쪽 참조.

의 존재가 되도록, 또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 최고의 것에 따라 살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sup>53)</sup>

---

53)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372쪽,

## 참고문헌

- 김경호, 「웰 에이징: 노년의 삶에 대한 여헌 장형광의 성찰」, 『동양고전연구』 제49집, 동양고전학회, 2012.
- 박혜란, 『나이듦에 대하여』, 웅진닷컴, 2001.
- 심혜련, 「탈역사시대의 기술적 이미지: 빌렘 플루서」, 『20세기의 매체철학』
- 장영란, 「늙음과 죽음의 윤리」, 『서양고전학연구』 제35권, 서양고전학회, 2009.
- 장영란, 「늙음의 현상과 여성주의 윤리」, 『동서철학연구』 제51집, 한국동서철학회, 2009.
- 조광제, 『의식의 85가지 얼굴. 후설 현상학의 주요개념』, 글항아리, 2008.
- 최성환, 「죽음의 해석학: 사태로서의 죽음」, 『철학탐구』 제16집, 중앙철학연구소, 2004.
- 장 그롱댕, 『철학적 해석학 입문』(최성환 옮김), 2008, 한울아카데미.
- 로버트 노직, 『무엇이 가치있는 인생인가: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질문』(김한영 옮김), 김영사, 2014.
- F. 니체, 『즐거운 학문』(안성찬·홍사현 옮김), 책세상, 2005.
- 버트런드 러셀, 『인간과 그 밖의 것들』(송은경 옮김), 「노령의 위협」, 오늘의 책, 2005.
- E.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강영안 역), 문예출판사, 1996.
- 조르주 미누아, 『노년의 역사』(박규현/김소라 옮김), 아모르문디, 2010.
- 시몬 드 보부아르, 『노년-나이듦의 의미와 위대함』(홍상희·박혜영 옮김), 책세상, 2002.
- 빌헬름 슈미트, 『나이든다는 것과 늙어간다는 것』(장영태 옮김), 책세상, 2014.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창우 외 옮김), EJB, 2006.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이병길, 최옥수 옮김), 박영사, 2003.

장 아메리, 『늪어감에 대하여』(김희상 옮김), 돌베개, 2014.

F. 펠만, 『행복의 철학사』(최성환 옮김), 시와 진실, 2012.

플라톤, 『국가』(박종현 역주), 서광사, 1997.

O.F. Bollnow, *Philosophie der Erkenntnis*, Erster Teil, 2. Aufl., Stuttgart 1981.

M. Heidegger, “Phänomenologische Interpretationen zu Aristoteles(Anzeige der hermeneutischen Situation)”, *Dilthey-Jahrbuch* 6(1989).

S. L. Sorgner/O. Fürbeth(Hg.), *Musik in der deutschen Philosophie*, Stuttgart 2003.

## An Hermeneutics of Times

— on the Fate of Aging —

Chang, Yura (Chung-Ang Univ.)  
Choi, Sung-Hwan (Chung-Ang Univ.)

‘Time’ is an important matter of philosophy and of life. The creation and change of the nature and the process of history occur in the passage of time, and in the regard that the process of life is in charge of the four phases of life (birth, old age, sickness, and death), time lies in the hub of the universe. However, time is difficult to understand even if there is no mention of Augustin. Moreover, time associated with life, namely time and tide, indeed is not only an abstruse subject but also an awkward subject. Nevertheless, in that no one can escape time, this is a matter associated with intrinsic nature of human life. If we turn a blind eye to this matter, in other words, if we stay with the customary interpretation to ease the burden of self-explanation instead of going through an intrinsic interpretation of oneself, we will suffer from “downfall”(Ruinananz) and “deficiency in oneself”(Sichselbstfehlen). Therefore, to get away from this kind of interpretation is the way to finding existence, and in this context, hermeneutics through self-explanation can actualize one’s task only on the way to dissolution.

As we are becoming an aging society recently, the matter of ‘aging’(Alterwerden) is becoming major sociological, psychological and philosophical object of concern. Becoming an object of concern signifies that although this is a ‘problem’, this has been ingrained as fate(常數, Konstante) in our life or social life. Therefore, philosophy

being interested in this new reality is reasonable. This paper contains a meaning of self-examination of philosophy which is acclimatizing to this new reality.

Key words: times, time, aging, old age, hermeneutics

장유라 E-mail: yurachang@daum.net

최성환 E-mail: shchoi@cau.ac.kr

투 고 일	2016년 10월 10일
심 사 일	2016년 10월 26일
게 재 확정	2016년 11월 11일